

진화론과 사건적 존재론: 화이트헤드의 다중위치적 존재론의 관점으로 조명하는 진화이론들의 포스트휴머니즘적 함의*

박 일 준 (감리신대)

【한글요약】

본고는 화이트헤드의 사건적 존재론을 통해 화이트헤드가 실제로 무엇을 구성했는지 즉 그의 철학이 실현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오히려 그의 철학이 사실상 무엇을 해체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다윈 진화론과의 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화이트헤드와 진화론 간의 공통분모를 그들이 ‘해체한 것’에서 찾아보자는 말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현상의 문제이다. 인간이 문제시 되는 시대, 때로는 ‘인간-횡단주의’(trans-humanism) 혹은 ‘탈-인간주의’(post-humanism)이라는 용어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무엇이 ‘인간-이후’(post-human)인지는 불확실한 시대. 존재를 실체(substance)나 존재(being)가 아니라 과정(process)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서도, 끝까지 플라톤주의자 이기를 자처하면서, 서양철학 전체를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철학자, 화이트헤드. 그의 철학은 적어도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불온하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금기어로 간주되는 ‘신’과 ‘진리’ 그리고 ‘조화’를 철학적 핵심어로 삼으면서도, ‘인간 이후’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진화론과 과정 철학은 여기서 만난다. 즉 양자 모두 인간의 소멸과 탄생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정위의 해체는 단지 근대적 실체론에 대한 이론적 거절을 넘어서서, 그에 기반한 우리의 통념적 인간 이해를 전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점에서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 떠나면 과거나 혹은 유전

*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1030).

자 혹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와 개체 사이’로부터 비롯됨을 알려준다. 즉 인간이라는 종은 지금도 끊임없이 기존 종의 경계를 이탈해 가면서, 새로운 경계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요어] 다중위치론, 단순정위의 오류, 화이트헤드, 다윈, 포스트-휴머니즘, 적응으로서 진화 개념의 오류, 자연선택, 형질분기.

1. 들어가는 글

남미 아마존 강이 에콰도르를 지나가는 유역의 지류인 코남부강가 작은 마을 마사라카에 살고 있는 사파라 부족의 원주민들은 거미 원숭이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며 생존해 왔다. 20세기 초엽부터 변성한 자동차 산업의 영향으로 고무산업을 위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과정에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들은 20세기 말엽 에콰도르 국경 근처에서 재발견되었다. 멸종된 줄 알았던 원시부족의 재발견을 반기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땅을 유네스코는 그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를 흥건히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 숲이 사라지고 사냥을 나가도 메추라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금기를 어기고 ‘거미 원숭이 사냥’을 시작했다. 자신들의 조상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족원들 중 그나마 말을 할 줄 아는 아나 마리아 산티는 탄식을 한다: “조상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더 남은게 무엇이냐?”¹⁾ 이제 우리는 이 탄식 속에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1) 앨런 와이즈먼(Alan Weisman), 『인간없는 세상』 (The World Without Us),

상상력'에 미치게 된다. 이미 오래전 제레미 리프킨은 『생명권 정치학』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나 '소가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을 역사적으로 기술해 주고 있다. 산업혁명은 양모의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던 땅을 이제 양털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땅에서 쫓겨난 소작농들은 이제 대도시 빈민가로 밀려들어, 공장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리프킨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기술했다.²⁾ 1 에이커의 땅을 경작해서 670 파운드의 밀가루를 생산해 내던 땅이 이제는 고작 176 파운드의 양고기만을 만들어내는 땅으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양을 키워 양털을 팔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익률이 높아졌다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높아진 이윤은 누구를 위하여 혹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땅의 소유자와 소수 목축업자에게만 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밀 경작지에서 양을 키우는 목장으로 바뀌면서, 땅에는 울타리가 쳐졌고, 이를 “울타리 치기 운동”(enclosure movement)이라고 한다. 땅과 사람이 이제 노동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고, 이를 토마스 홉스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³⁾ 이 상황은 이제 20세기 들어 양이 아니라 소와 더불어 남미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햄버거 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국적 회사들이 소 목장을 운영할 곳을 찾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극적으로 역설적인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13쇄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15.

2)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생명권 정치학』 (Biosphre Politics), 이정배 역 (서울: 대화출판사, 1996), 76.

3) 제레미 리프킨, 『생명권 정치학』 (Biosphre Politics), 84.

는 이렇게 탄식을 해야 할 것 같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더 남은 게 무엇이나?’ 이제 우리는 문명이나 문화 혹은 종교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다. ‘인간-이후’(post-human)은 결국 탈/인간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덴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는 인류의 멸종을 가져올 불임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천재 과학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면서 지구와 그 위의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류가 ‘멸종’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그의 상상력만이 아니라, 1991년 레스 나이트(Les U. Knight)가 창설한 ‘자발적 인류멸종운동’(Voluntary Human Extinction Movement, VHEMT)을 통해 자발적 불임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⁴⁾ 와이즈먼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덴 브라운의 소설이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인류가 자발적 인구감소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임여성의 출산 자녀수를 하나로 제한하는 것처럼 말이다.⁵⁾ 혹은 이러한 인류멸종의 시대를 첨단기술로 극복하여,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정신적 인류의 출현을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스트’ 혹은 ‘포스트휴머니스트’들도 있다. 멸종이든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진화든 간에 핵심적 메시지는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post-humanism’을 해석하는 다른 시각의 필요성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의 멸종이나 ‘초-인간의 탄생’이나 모두 생물학적인 종의 멸종을 목적하기 보다는 문학적인 표현기제 형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들은 곧 우리가 새롭게 ‘인간 현상을 구성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인간은 멸종할 것, 그래서 그를 방지하려면 ‘새로운 개념의 인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4) 앨런 와이즈먼, 『인간없는 세상』, 338.

5) 앨런 와이즈먼, 『인간없는 세상』, 380.

이것이 니체의 ‘초인’(der Übermensch, the Overman)을 향한 상상력이었다. 인간주의(humanism)는 언제나 인간중심주의, 혹은 자기인종중심주의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인간주의’는 언제나 인간주의의 해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데리다의 지적⁶⁾은 이미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이후’주의 혹은 ‘탈-인간주의’로 예언해 가고 있다. 본고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이 탈-인간주의의 상상력을 담지하고 있으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진화론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점에서 조우하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려 한다. 즉 과정철학과 진화론 모두 인간의 소멸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현상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을 정의하는 개념적 틀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다.

2. 화이트헤드의 다중위치론

화이트헤드는 철학사 속에서 한 개체나 존재를 정의해 왔던 방식, 즉 실체론적인 사유 방식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다. 즉 그가 보는 실재(reality)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화하는데, 우리의 명사중심적 언어들은 언제나 주체나 대상을 고정하고 박제하여 실체론적으로 혹은 실체인 듯이 연상시켜주고 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중심적인 시각(process-centred view)으로 실재를 그려줄 언어를 원했고, 그래서 그의 철학은 바로 이 형성 중인(in the making) 과정을 포착할 용어들의 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철학적 용어들의 개발 이면에는 기존의 언어들이

6) Jacques Derrida, *Th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23.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실재를 우리에게 왜곡시켜 전달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비판의식과 아울러 그 왜곡된 실재를 넘어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꿈꾸고 있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은 ‘인간-이후 인간’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오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철학이다. 달리 말하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모든 존재를 현실체(actual entity)⁷⁾로 이해하면서, 인간중심주의를 철저히 해체하고, ‘인간-이후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여기서 인간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존재하며, 인간이라는 종의 경계는 그 다중적 위치성으로 말미암아 매우 애매하고 불분명하다. 다중적 위치성은 단지 공간적 다중성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다중성도 내포한다. 즉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된 한 순간이 아니라, 현재 그 자체가 이미 과거와 미래와 혼종된 다수(the multitude)이다. 그렇다. 다수성이다. 그러나 그 다수성은 단순정의의 인식 틀 속에서 말하는 ‘다수’가 아니라, 다중성의 틀 속에서 다수성이다. 즉 한 개체가 여러 개의 다수로 분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정의의 인식 틀 속에서 ‘하나’로 인식하던 개체는 하나로 획일화될 수 없는 다중성을 담지하고 있어서, 개체의 경계는 생각보다 중층적이고 복잡하고 애

7) 현실체(actual entity)에 대한 기존 번역통례는 “현실적 존재”이다. 하지만 본고의 논조가 ‘존재 중심의 사유를 넘어설 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가급적 ‘존재’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현실체’라고 번역하였으나, 학회 논문발표 시 이 번역을 다른 한편으로 너무 ‘실체’론적인 뉘앙스가 풍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존재나 실체의 뉘앙스를 넘어서는 대안적 제3의 용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화이트헤드의 용어 선택은 바로 그 점을 목적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화이트헤드 연구자들이 이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현실체’라는 용어를 본고의 맥락에 한정된 의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을 양지하길 바란다.

매하다는 것이다.

근대의 개체(individual)는 독립적(independent)이다. 이는 이미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주체의 전제이다.⁸⁾ 화이트헤드는 이 개체의 독립성을 “단순정위의 오류”(the fallacy of simple location)⁹⁾라 하였다. ‘단순정위’(simple location)란 말의 뜻은 무척 단순하다. 즉 한 사물은 하나의 단순한 위치(a simple location)를 갖는다는 원리이다.¹⁰⁾ 한 개의 개별 사물은 한 위치를 점유하고, 다른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가 저기 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만, 나는 그 사과와 나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을 집어 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다. 만일 한 사과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또 다른 저쪽에도 있다면, 도대체 사과를 집기 위해 나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단 말인가? 사실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의 독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정위란 데카르트적인 사유 주체의 인지의 전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적 세계관의 전제이기도 하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단순정위 원리는 17세기 근대과학의 토대였다.¹¹⁾ 즉 사물의 위치를 한 위치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근대과학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는 말이다. 만일 이 근대라는 시기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¹²⁾가 설명되고 설득되었더라면, 근대 과학은

8)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by D.R. Griffin and D.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137.

9)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137.

10) 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Lowell Lectures, 1925,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49.

11) 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58.

12) 참조 -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 레오나르드 몰로디노프(Leonard Mlodinow),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 전대호 역 (서울: 까치글

시작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면, 만일 그랬더라면, 역설적으로 현대의 양자물리학도 태동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은 어쨌든 근대의 단순정위 원리를 거쳐, 불확정성의 원리로 발전해 온 것이다. 비록 불확정성 원리가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해도 말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이 17세기 과학 원리로서 단순정위는 그 이론의 설득력을 위해 자연을 ‘이분화’(bifurcation)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데카르트가 시도했던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간의 이분법을 가리킨다. 즉 인식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저 인식주체 바깥의 대상은 인식이라는 정신적 활동 ‘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인식 주체의 안과 밖 모두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단순정위 원리’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자연의 이분화는 사실 뉴턴 이래 알려진 빛과 소리의 원리가 가져다 준 근대 과학의 딜레마이다. 즉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는 것은 사물들이 직접 우리의 눈과 귀로 달려와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눈과 귀에 전달되는 것은 빛의 파동이거나 소리의 파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색을 가진 사물들과 그들이 내는 소리들이다.¹³⁾ 단순정위 원리를 적용할 경우, 우리가 인식 속에 있는 대상은 인식 바깥의 대상과 같은 것일 수가 없다. 즉 인식 주체 안에 표상되는 대상은 정신적인 현상이고, 주체 바깥 저기에 존재하는 대상은 물

방, 2010), 88-89; 141-142.

13) A.N. Whitehead, *The Concept of Nature*, (New York: Cosimo, Inc., 2007; originally published in 1920), 27.

질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자연의 이분화가 이루어진다. 즉 주체 안의 현상과 주체 바깥의 대상은 ‘자연’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혼연일체의 현상을 주체와 객체로, 정신과 물질로 혹은 제1속성과 제2속성으로 구별하여 환원론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단순정위 원리가 안고 있는 인식 혹은 파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이분화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한다. 예를 들어, 인식하는 주체의 바깥에 존재하는 저 대상들과 주체가 내적으로 파지하고 있는 사물대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보증되는가? 문제는 바로 단순 정의의 원리 자체가 자연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단순정위 원리는 ‘시간의 흐름’과 연관하여 ‘반복’의 문제를 야기한다. 어떻게 한 특정 시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체가 비가역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동일성’(identity)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 말이다. 이는 곧 “객관화 원칙”(the doctrine of objectification),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객관적 불멸성 원칙”의 문제이다.¹⁴⁾ 어제 만난 사람과 오늘 만난 사람의 동일성을 인식 주체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자연의 이분화(bifurcation of nature)를 극복하기 위해 화이트헤드가 구성한 이론이 바로 ‘파악 이론’이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파악 이론을 통해서 자연의 이분화를 넘어서서 “현실체들의 이분화”(bifurcation of actualities)를 극복하고자 하였다.¹⁵⁾ 즉 현실체는 언제나 ‘공적 존재’(publicity)와 사적 존재(privacy) 간의 이분화로 파악된다. 현실체는 세계의 공공성을 구성하면서도 동시에 개체의

14)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137.

15)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89.

사적 삶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이 현실체들의 이분화 현상을 설명하고 극복하기 위해 화이트헤드는 현실체의 주체를 주/객 이원론을 넘어서서 주체/초월체(subject/superject) 개념으로 수정해서 제시한다. 이러한 존재현실의 이중성은 영원한 대상들에게도 공히 해당되는데, 이들은 공적 존재의 측면에서 “보편”(universal)이지만, 사물들의 사적 존재 현실 측면에서는 “속성 혹은 특질”(quality or characteristic)로 간주된다.¹⁶⁾ 따라서 모든 현실체들은 존재의 이중성 혹은 이중적 존재성을 갖는다. 즉 모든 현실체들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것이다. ‘단순정위 원리’는 바로 이 상식적인 생활 세계 원리를 자연의 양화를 위해 포기한 결과로 구성된 것이다. 주/객 이원론은 객체를 마치 죽은 사물처럼 전적인 수동성으로 파악하고, 인식의 능동성은 오로지 주체를 통해서만 발휘된다고 가정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현실체들이 주/객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 모든 객체들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주체에 대한 인식적 능동작인의 개념도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파악이론을 “수정된 주관주의 원리”(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이라 칭한다.¹⁷⁾

파악이론은 “이 자리 여기에서 다른 자리들에 전거를 두고 있는 사물들의 파악”¹⁸⁾을 다루는 것이다. 즉 파악은 “여기에서 지금”(a here and a now) 저 다른 곳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통일적으로 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파악은 저 외부 사물들을 직접 ‘여기 지금’의 파악으로 가져와서 외부 대상들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외부 사물들이 저기 바깥에 있고, 파악 안에

16)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290.

17) A.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157; 167.

18) 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69.

있는 내용들은 가상의 혹은 복사본의 것들인 것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파악 속에 진입한 사물 대상들은 그들 자체로의 대상들은 아니지만, 파악의 “관점”(from the standpoint)에서 그 사물 대상들로서, 파악의 통일성 속에 존재하는 사물 대상들인 것이다.¹⁹⁾ 여기서 핵심은 인식 과정에서 주체는 능동적, 객체는 수동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종래의 주관주의적 원리는 반쪽의 진리만을 담고 있으며, 오히려 인식/파악 과정은 주객의 상호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점에서 자연은 ‘이분화’(bifurcation)를 통해서 분석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어도, 결코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체와 객체는 파악과 동행하는 합생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하이트헤드의 파악 이론은 그의 현대과학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단순정위 원리는 현대 과학에서 폐기되었다. 즉 이미 시공간의 수축과 팽창을 전제하는 상대성 이론 이후, 사물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를 “진원지”(focal region)로 알려줄 뿐이다.²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물들은 그들의 행위들, 즉 그들의 영향력으로 분별가능한데, 사물은 그 진원지(focal region)에서 보자면 결국 “다양한 영향력들의 흐름”²¹⁾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단순정위 원리’의 포기란 곧 “한정된 시공간의 범위 내에는 이 다양한 사물들의 헤아릴 수 없는 다수(multitude)가 어떤 의미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²²⁾ 이런 맥락에서 한 대상이나 주체는 결코 ‘단순히 저기 위치’할 수가 없다. 모든 현실체는 다수의 겹침(superposition of the multitude)으로 존재한다.

19) 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69-70.

20) A.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originally published in 1933), 157.

21) A.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157.

22) A.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158.

그런데, 현실체가 다수의 겹침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곧 논리적으로 모든 현실체는 도처에 즉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헤드는 단순정위 원리의 포기는 곧 모든 사물들의 모든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모든 도처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모든 위치는 모든 다른 위치에서 그 자체에 대한 측면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시공간적 관점은 세계를 반영한다.”²³⁾ 따라서 모든 현실체는 다수이면서 동시에 다중위치적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의 ‘단순정의 비판’은 곧 ‘다중위치성’을 함의하지만, 그것이 곧 한 현실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현실체가 파악관계 속에서 단지 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는 식으로 파악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의 위치는 여러 곳 도처 혹은 가장 확대해석하면 모든 곳에 존재하고, 이것은 곧 그의 존재가 근대의 개체 이해가 전개한 것처럼 명확한 내외의 경계로 나뉘질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가리킨다.

현실체를 하나의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개체로 파악하려는 습벽은 우리의 몸이 가져다주는 일상의 상상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내 몸은 나의 것이고, 타인의 것이 아니며, 나라는 의식과 주체는 내 몸이 소멸하면 사라진다. 몸은 ‘나’의 가장 직접적인 환경이면서, 동시에 그 몸 너머의 외부 세계와 맞닿아 있으면서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로 진입토록 하는 채널의 구실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다.²⁴⁾ 따라서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외부 자연이 어디서 끝나는 지를 정의할 수 없다”²⁵⁾고 화이트헤드는 말한다. 이는 곧 몸과 그 외부

23) 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91.

24) 참조 - 박일준, 「화이트헤드의 사건적 존재론: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사이-존재로서 새로운 인간 이해」, 『화이트헤드 연구』, 26집 (2013), 11.

25) A.N. Whitehead, *Modes of Thought*, p.21.

환경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또한 몸은 원자적인 기초 단위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의 부분들의 환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은 그 부분들의 합인 것만도 아니고, 몸의 부분들이 단지 몸의 부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도 아니다.²⁶⁾ 각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단순정위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 즉 ‘다중위치성’이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원자적이고 개체적 이해의 토대는 각 개체들 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이는 곧 그 개체들의 집단 경계도 각 개체들이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집단 간도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만일 존재의 기본단위인 현실체가 비원자적이고 비개체적이라면 그래서 그의 존재는 중첩되고 애매하고 다중적이라면, 집단 간 구별도 중첩되고 애매하고 다중적일 것이다. 따라서 종 간의 경계도 애매하고 다중적이다. 몸의 경계도 애매하고 다중적인 것처럼 말이다.

화이트헤드의 이 다중위치적 다수의 존재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갖는다. 즉 ‘단순정위 원리’의 포기란 결코 특정한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포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전체 사유 틀의 붕괴나 해체를 동반한다. 우리가 화이트헤드의 사유를 거듭 거듭 오해하게 되는 이유이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의 특정한 개념들이나 생각 혹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 인용한다. 화이트헤드의 다중위치적 존재론은—비록 화이트헤드 스스로는 단 한번도 ‘다중위치론’(multi-lo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근원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개념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 상을 해체한다. 즉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의 변화를 촉

26) I. Stengers, *Thinking with Whitehead*, p.175.

구한다. 사실 자연과 인간, 문화와 자연, 인간과 동물 등의 구별은 인간에 대한 어떤 특정한 개념과 생각과 이미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저 즉 토대에는 사실 근대의 ‘단순정위 원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순정위 원리를 포기 혹은 넘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재사유를 요구받고 있으며, 아직 그 ‘인간-이후’에 대한 사고는 진행 중이다. 다수로서의 현실체는 이미 존재를 ‘과정’으로 이해한 화이트헤드에게 ‘인간-이후 인간’의 상상력을 가져다주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 인간-이후-인간을 기존의 용어로 설명하는 대신 ‘현실체’(actual entity) 혹은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같은 용어들로 대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인간을 다수성의 존재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개체로서의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불온한 상상력을 접하게 된다.

3. 다중위치론과 진화론 - 『종의 기원』을 중심으로

단순정위 원리의 폐지는 곧 ‘개체’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동반한다. 근대의 개체(individual)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실체(substance)에 대한 이해와 결부된다는 것이다. 즉 실체론적 개체 이해가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근대의 개체에 대한 이해가 획일적으로 실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체론적인 개체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들이 이미 근대 시대로부터 발아하고 있었고, 진화론의 가장 큰 혁명성은 바로 그 개체로서의 존재론을 뿌리에서부터 해체한 데 있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다윈의 『종의 기원』의 가장 큰 기여는 바로 ‘종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멸하고 생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은 언제나 ‘개체와 개체 사이’ 즉 구체적인 차이들이 발생하는 일상이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의 경계는 애매하고 중첩적이며, 종은 그 독자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의 차이로 인해 유동한다는 것이다.

다윈은 자연선택이 진화의 “주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²⁷⁾ 다윈에게 종의 기원을 낳는 기제들이 여럿 있었다. 이 모두는 결국 ‘생존투쟁’(survival for existence)²⁸⁾을 가능케 해주는 기제들이다. 그 중,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 성 선택(sexual selection) 그리고 형질 분기(divergence of character)는 모두 종의 기존 경계를 넘어가려는 힘을 보여준다.

다윈에게 자연선택의 단위는 언제나 ‘개체’(individual)였다. 이는 다른 선택의 단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윈이 자연선택이 이루어지는 단위를 ‘종’으로 보았고, 그 종의 구성이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종 안에 개체들이란 서로로부터의 ‘변이들’이고, 그 서로 다른 차이들이 이루어내는 경쟁과 협동이 생

27)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7.

28) 다윈은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나 ‘생존경쟁’(competition for survival)이라는 단어보다는 ‘생존투쟁’(struggle for existenc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종의 기원』의 5판 이후부터는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언제나 ‘생존투쟁’이라는 초기 용어와 병기해서 사용할 만큼 ‘생존투쟁’이라는 단어에 애착이 많았다. 그리고 그 만큼 다윈이 종의 기원과 진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생명의 근원적 힘이 ‘종’이라는 가상적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종(species)이 곧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종은 생명의 그 투쟁적 현신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다중적으로 변화해 나아간다는 것이 진화의 핵심이다.

존투쟁이다. 이 생존투쟁으로 인해 개체들 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종으로 엮일 수 없을 때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데, 본래 같은 종으로 분류되던 일부 개체들이 다른 종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다.²⁹⁾ 다윈의 재미있는 발상은 이 과정에서 승리하는 개체들은 가장 강하거나 빠른 개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아 가장 부모를 닮지 않은 개체들, 상궤에서 벗어난 개체들, 다시 말해 가장 이상(異常)한 개체들”³⁰⁾일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부모를 닮은 개체들이 단기적인 경쟁에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와 가장 닮지 않은 개체들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의 개체적 차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개체가 자연선택이라는 생존투쟁의 장에서 최종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사유한 것이다. 즉 진화는 자연선택을 통해 ‘차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체들’에게 생존투쟁을 이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성 선택’은 자연선택 이외의 진화기제이다. 즉 자연 선택, 즉 메이어의 용어들을 차용하자면, (유전적) 변이와 (환경적) 선택을 통한 차이의 창출이 아니라, 이성생식을 하는 유기체들 사이에서 배우자의 선택을 받는 과정을 통한 차이의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성 선택에서 선택의 주체(agent)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성의 상대이다. 성 선택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것이 곧 생존경쟁에서 우월성을 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때로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처럼 성 선택에서는 우월하지만, 생존경쟁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 선택은 자연 선택과 동일한 기제가 전혀 아니다. 이 성 선택은 개체의

29)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177.

30)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178.

생존에 유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개체로부터 선택받기에 유리한 특성을 선호한다. 말하자면 배우자 개체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나와 동성의 경쟁자들과 내가 갖고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극대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결국 차이의 종류가 자연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종류와 다르다. 자연선택을 변이와 선택의 상호작용으로 볼 때에는 환경적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유리하겠지만, 성 선택에서는 배우자에게 이성적으로 호소할(appeal) 만한 특징을 최대로 갖고 있는 개체가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개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달려있으므로, 상대방의 선택을 잘 받는 개체가 되려면, 다른 개체들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개체들이 선택을 받아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형질분기’(divergence of character)는 종의 변이가 생태적 다양성을 낳게 되면서 복수의 신종이 출현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비슷하거나 유사한 종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첩되는 공간에 공존하게 되면서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사종들 간의 상호 직접적인 경쟁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형질을 다양하게 분기시킴으로써 공존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직접 생존투쟁을 위한 경쟁을 벌일 때 발생하는 한 종의 제거나 멸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질을 분기시켜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연 선택’과는 다른 기제이다. 즉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투쟁은 “자연 바깥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 안에서 움직이면서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만들어내는 것”³¹⁾이다. 즉 경쟁을 통한 경쟁 종의 멸종이나 제거보다는 “특성의 분화”³²⁾를 추구하고, 그러한 특성 분화

31)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43.

로 인해 동일한 영역 안에 더 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연 선택은 개체의 특성분화로 인한 다양성의 증가를 가져다주고, 이 다양성의 증가가 개체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개체 변이의 증가는 다시 종 분화를 촉발한다. 이때 ‘형질’(character)은 “개체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며, “개체나 무리(종, 속, ... 목, 강 등)의 부분이면서도 그런 단위들의 경계를 마구 가로” 질러, “계속 갈라지고 벌”어져 간다.³³⁾ 이 형질의 다양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생(共生)을 가능케 해준다. 따라서 형질분기는 자연선택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진화를 가능케 해준다. 이 형질분기의 원리가 진화의 원리로 작동하려면, 사실 ‘멸종의 원리’와 동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즉 새롭게 개량된 형질변경 종은 “그 계통의 각 단계에서의 선행자와 원래의 자기 조상을 끊임없이 몰아내 마침내 멸망시켜 버리는 경향”을 갖는다.³⁴⁾ 즉 새롭게 변경된 형질을 갖고 있지 못한 개체는 다른 종과의 무한 생존경쟁에 돌입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형질변경은 그 생존경쟁을 우회하고, 함께 생존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 이 형질변경 원리와 멸종의 원리가 맞물려, 진화는 “더 새롭고 더 변화된 자손을 산출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는데, 이는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말하듯이) “자신을 복제하는 동일성(identity)의 정치”가 아니라, “변신, 끝없는 변신,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화살처럼 결코 자신으로 회귀하지 않는 변신”이다.³⁵⁾

진화의 생존투쟁이란 ‘변이’(variation)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작동 기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영향력 있고 비중이 큰 것은 물

32)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44.

33)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291.

34)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01.

35)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09.

론 자연선택이다. 그리고 성 선택과 형질 분기가 있다. 서로 지향점과 작동방식 그리고 목표가 달라도, 이 세 기제들을 통한 개체의 생존투쟁은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 즉 ‘변이를 창출해 내는 것에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진화의 생존투쟁이란 “자신과 같은 것, 자신과 닮은 것을 더 늘리려는 투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새로운 것을 낳으려 하는 투쟁”으로서, 후대로 나아갈수록 “최대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달라진 변종, 아니 아예 새로운 종들을 무수히 낳기 위한 끝없는 분투(奮鬪)”이다.³⁶⁾ 즉, 생존투쟁(struggle for existence)은 “자신의 정체성(동일성)을 잃음으로써 무수한 타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힘이 바로 “수많은 다른 종들이 끊임없이 ‘창조’될 수 있는 ‘힘’”이다.³⁷⁾ 바로 이 점에서 우주 내 모든 존재를 ‘현실체’로 이해하면서, 사건적 과정 속에서 ‘존재’론을 새롭게 추구한 화이트헤드의 시도는 다윈의 시도와 유사한 접점을 갖는다.

진화를 이렇게 변이를 통한 종의 탄생과정으로 보는 다윈의 진화론에는 개체(individual)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담겨있다. 다윈 이전까지 개체란 “종의 형상(이데아 혹은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였다.³⁸⁾ 그런데 다윈에게 개체란 오히려 ‘종의 경계로부터의 이탈 혹은 탈주’를 의미한다. 즉 그의 진화론은 이전 유전자들의 반복과 복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질서로부터의 한없는 이탈,” 즉 “기존의 질서로 결코 회귀하지 않는 이탈”의 끊임없는 운동, 다시 말해서 “변종이 원형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탈과 변화야말로 진화와 창조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36)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09.

37)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09.

38)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23.

있다.³⁹⁾

이를 더 밀고 나아가 말하자면, 진화란 결국 “기존 종의 멸종”이며, 인간의 진화란 “인간의 멸정이자 아직 어떤 존재인지 알수 없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가리킨다.⁴⁰⁾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새로운 종의 탄생’은 “더 나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게 하는 것,” 즉 “인간의 장점을 더욱 축적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⁴¹⁾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결국 “인간이 동물의 하나요 생물의 하나라는 것, 따라서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주장이 놓여있다.⁴²⁾ 진화가 인간이 유별난 생명체 아니라 동물과 동등한 생명이라는 주장은 곧 인간을 하등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정의 근원적으로 하나의 생명원리를 통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담지한 혁명적 발상은 종의 진화라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다윈은 한 종이 없어지고 다른 종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한 종이 수많은 상이한 개체들로 이루어지며 그 개체들의 차이가 형질분기 원리와 자연선택 원리에 의해 신종의 진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그가 가져온 전복적 혁명이었다.⁴³⁾

1) 적응으로서의 진화 개념의 오류

화이트헤드가 다중적 존재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순정위’와 ‘자

39)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323.

40)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436.

41)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436.

42)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447.

43)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718.

연의 이분화' 원리를 극복해야 했던 것처럼, 다윈의 변이 진화론이 '인간-이후' 시대를 함축하는 논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진화론에 대한 고전적인 인식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진화를 '적응'(adaptation)으로 보는 관점이다. 진화를 적응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문제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인간 종 중심주의적 사고로 다시 회귀하여, 우리의 이해 속에 이분법적 서열구조를 고착화시켜낸다는 것이다. 다윈도 '적응'이 자연선택의 주요한 효과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응이 자연선택의 목적인다고 할 경우, 불완전한 적응의 무수한 사례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⁴⁴⁾ 오히려 역으로 그 무수한 불완전 적응 사례들이 오히려 진화는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사실 다윈은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자연선택을 유일무이한 원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성 선택은 자연선택의 원리들을 위반한다. 즉 이성 개체의 관심을 끌기위해 수컷들이 갖추고 있는 표현형적 속성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최적의 적응과는 거리가 멀다. 과장된 날개나 과장된 뿔 등은 포식자에게 자신을 노출시킬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윈은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 선택은 사각지대에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적응적 패러다임은 자연선택 프로그램과 상당히 흡사하다. 적응의 조건들이 미리 전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적응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최적'의 이상을 개념으로 담지하고 있다. 굴드와 리원틴은 이 적응주의적 패러다임을 강렬히 비판한다. 적응이란 진화과정의 우연적인 부산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화가 목적하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윈의 자연선택 개념을 적응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우리는 자연 선택을 "설계자 없는 설계 개념"⁴⁵⁾

44)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49.

으로 이해하게 되며, 이는 창조나 진화의 다양하게 가능한 많은 원인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꼴이 된다.

적응이 자연선택을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채택된 것은 ‘신다윈주의의 해석’인데, 사실 자연선택은 일정한 수준에서만 작동하며, “여러 군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적응과 상관없는 이유 때문에 생긴다.”⁴⁶⁾ 하지만 신다윈주의는 “누적된 자연선택은 적응을 진화적 변화 기제 가운데 최고의” 목적으로 삼도록 만들어, “적응주의 프로그램을 [심지어] 숭배”하도록 만들었다.⁴⁷⁾ 이런 맥락에서 다윈이 아니라, 다윈주의(Darwinism)는 자연신학에 가깝다. 즉 다윈주의와 자연신학 간의 공통점은 “원인을 규정하는 상수”를 전제한다는 점인데, 다윈주의는 “자연선택”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적응으로서 자연선택을, 한편 자연신학은 “신”을 상수로 삼는다.⁴⁸⁾ 따라서 적응개념으로서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 본래 의미하는 바에 대한 왜곡이다. 특별히 굴드와 리원틴은 적응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데,⁴⁹⁾ 그 중 특별히 첫 번째 지적은 본고의 논증과 연관하여 중요한 지적이다. 즉 적응주의는 “생명체를 원자처럼” 파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⁵⁰⁾ 즉 ‘적응’을 설정하기 위해 한 개체 생명체를 ‘통합된 전체’로 보지 않고, 그 속성이나 형질이 어떻게 ‘적응적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적응적 속성이나 형질은 적응을 설정하는 “이론적 추상화의 산물”이지, 결코 생명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⁵¹⁾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

45)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57.

46)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59.

47)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1.

48)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3.

49)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4-172.

50)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4.

51)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5.

하는 형질이나 속성의 적응은 결국 유기체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이나 속성으로 분해되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인데, “다면발현pleiotropy, 상대성장allometry, 상위epistasis” 등과 같은 현상들은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에 반대되는 현상들이다.⁵²⁾ 물론 자연선택은 있었지만, 그러나 특정의 속성이나 형질을 위한 선택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진화는 결국 원자적인 개체가 진화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개체들 사이’(the in-between of individuals)가 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진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은 개념적 추상의 산물이지, 결코 실재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적어도 ‘종’이라는 개념을 ‘단순정위 원리’에서 이해한다면 말이다. 핵심은 ‘종’이라는 개념을 ‘다중위치성’ 개념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냐이다.

4. 현대 진화이론들 속에서 다중위치론에 근거한 사건적 존재론의 함의 - ‘인간-이후 시대’ (A Post-Humanism Age)를 꿈꾸다

우선 현대 진화 이론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메이어의 진화론을 살펴보자. 메이어(Ernst Mayr)는 진화를 두 작용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이해했는데, 이 두 작용은 변이(variation)와 올바른 선택(selection proper)이다. 그리고 이를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라 한다. 변이들은 유전형

52)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66.

에 작용하는 궁극적 인과율(the ultimate causation)에 의해 발생한다. 유전자들은 “유전자 유동, 변화 인자들, 그리고 돌연변이”⁵³⁾를 포함한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가급적 많은 변이들을 만들어 낸다. 변이들의 생산은 우연성, 즉 변이를 만들어내려는 유전자 재조합의 우연한 방식에 기반한다. 올바른 선택(selection proper)은 표현형(phenotype)에 영향을 미치는 근사 인과율(the proximate caus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선택하는 힘은 “환경 인자들과 표현형들의 기질적 복합”(a composite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phenotypic propensities)⁵⁴⁾이다. 이 선택 기제, 즉 근사적 인과율은 임의적이지 않고, 따라서 우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기반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전형은 발달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유기체의 후성발달을 방향정위한다. 표현형은 올바른 선택 기제를 통해 유전 정보를 해독한 결과이다. 변이와 올바른 선택의 상호작용과정은 적자생존의 과정이 아니라 “비임의적 제거”(nonrandom elimination)⁵⁵⁾ 과정이다. 선택은 적자를 선택하지 않고, 환경의 흐름에 덜 적응한 개체들을 제거한다. 이 과정은 우연이나 필연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연과 필연의 상호작용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작용기제들, 즉 근사적 인과율과 궁극적 인과율이 적응한 유기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진화는 자연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자연선택은 두 가지 요인들 즉 유전자와 환경의 작용으로 구성된다. 유전자는 진화의 궁극적 원인이 되지만, 그 작동은 우연적인

53) Ernst Mayr, *This is Biology: the Science of the Living Worl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188.

54) Mayr, *This is Biology: the Science of the Living World*, 189.

55) Ibid.

재조합에 기반한다. 환경은 진화의 근사적 원인으로 기능하지만, 작동방식은 필연적인 선택에 기반한다.

이 메이어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우선 ‘유전자’와 ‘환경’이다. 다시 말하자면, 메이어는 자연 선택을 유전자와 환경 간의 이원적 상호작용으로 추려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전자와 환경을 중심으로 자연선택의 과정을 재기술한 메이어의 설명은 다윈의 진화론을 유전자의 발견 이후 새롭게 적합하게 이해하는 창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바로 그 때문에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제기한 진정한 개념적 혁명을 은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혁명은 바로 ‘종의 해체’와 ‘인간 멸종’이라는 발상이다.

본래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의 기본단위를 ‘개체’로 설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종은 역사적 구성개념으로서 생존 투쟁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체를 자연선택의 유일한 단위로 설정하는데 난점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윈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먼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고, 둘째가 “생식하지 못하는 생명체”의 존재 즉 사회생활을 하는 개미와 같은 곤충들의 무리 중 많은 수가 생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⁵⁶⁾ 여기서 자연선택의 기본단위인 ‘개체’는 유명론적 개념으로 변해버리고, 더 나아가 ‘유명론적 존재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다윈은 자연선택이 개체의 선을 위해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타적 행위와 비생식적 개체의 존재는 그 개체 개념이 분명한 선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이타적 행위로 이익을 얻는 단위는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가 속한 집단이다. 물론 집단의 생존이 해당 개체에게 이익을 줄

56)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69.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개체는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이 경우, 우리는 굴드의 제안처럼 집단을 ‘개체’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윈의 이론을 수정해야 하는 난국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개체란 명칭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⁵⁷⁾

현재 생물학은 자연선택 단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고 있는데, 결국 요점은 이상의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집단과 개체 개념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생물학자들은 ‘친족 선택’(kin selection) 개념과 ‘포괄적 적응도’(inclusive fitness) 개념을 도입했다. 친족 선택 개념은 한 개체의 이타적인 행동은 개체 선택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집단에 유리한 범위 안에서 개체는 (자기 대신이라도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협동하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적응도’ 개념이란 한 개체가 자신의 친족 관계에 있는 개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의지의 양을 ‘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 개체는 부모와 자식 중에서 누구를 위해 더 희생적일까? 친족 선택 개념에 따르면 당연히 자식이다. 부모는 내 유전자를 전달해 줄수 없지만, 자식은 내 유전자의 일부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친족의 범위 안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양적으로 표기하는 공식이 $1/2n-1$ 이다. 이 공식에서 n 은 친족 간의 촌수를 의미한다. 친족간 촌수를 대입하면, 해당 개체가 어느 정도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식의 대입 없이도 어느 정도 추측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수학방정식을 통해 공식화해야 했을까 하는

57)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1.

의문은 든다. 이를 통해 스미스(John Maynard Smith)와 해밀턴(William Hamilton)은 적어도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주의적 행동’ 간의 모순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타적 행동은 정녕 친족 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순수하게 전적으로 ‘집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들이 있다. 이러한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인데, 핵심은 ‘내가 A를 주면, 너는 나에게 B를 주어야 한다’는 give-and-take 형식의 보상 이론에 근거해 있다. 즉 한 개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공짜로’(for free)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해당 개체의 직간접적인 보상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대의 이론들 말고, 정작 다윈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분명히 다윈은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선택’ 개념을 도입하였다: “곤충 군집에 속한 일부 개체에서 나타난 불임은 그 곤충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선택은 개체에도 적용되지만 과(科 family)에도 적용되어 선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 보자. ... 따라서 나는 불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 ... 불임은 군집에 이득이 되었다. ...”⁵⁸⁾ 즉 자연선택은 개체만이 아니라 과나 군에도 작용하며, 더 나아가 다윈은 제6판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자연선택은 군집 전체에 유리하도록 각 개체의 구조를 적응시킬 것이다”고까지 적고 있다.⁵⁹⁾ 인간 사회에서 도덕은 바로 그렇게 작동한다. 그래서 다윈은 도덕성이 높은 개체가 많은 ‘종족’이 그렇지 못한 종

58) Darwin, On the Origin of Species, 243;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4에서 재인용.

59)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5.

죽보다 자연선택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⁰⁾ 심지어 더 나아가 다윈은 “군집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또는 군집에만 유리하도록 하는 ... 어떤 정신능력이 존재한다”⁶¹⁾고 까지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윈이 개체 선택을 부정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다윈은 개체 선택 개념이 “사회적 군집을 포함한다”고 월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적고 있다.⁶²⁾ 그렇다면 다윈이 사용하는 ‘개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체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종류의 요소들”이며, 그 자체로 이미 개체이면서 다수(multiple)인 것이다. 개체이면서 다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이렇게 해석해 보자. 단순정위 관점에서 개체란 자신과 그의 타자들과 확고한 경계로 구별되어 있다. 자신과 환경과도 확고하게 구별되어있다고 믿어진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 확고한 상식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개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위치해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애매하고 중첩적이다.

이 개념의 애매성과 중첩성 그리고 다중성은 ‘집단’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단 선택 개념은 사실 생물학자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던 개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집단 혹은 군집이 개체처럼 하나의 작인으로 작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생태계 내에서 개체수 밀도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은 개체수 밀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항상성 체계”⁶³⁾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60)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6.

61) Charles Darwin,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2 vols. (London: John Murray, 1871), 1:155;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7에서 재인용.

62)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78.

물론 이 집단선택 효과를 “집단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개체의 생존투쟁이 가져온 효과”⁶⁴⁾로 해석하는 것은 다윈 이래 전통적인 해석방법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 다윈의 본래 고민 즉 이타주의적 행동과 비생식적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소버와 윌슨은 집단선택을 개체선택의 부차적인 효과로만 해석하려는 것을 “평준화의 오류”⁶⁵⁾라 이름한다. 커닝햄은 여기서 ‘집단 선택’이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개념이 역사적 구성물이라면, 우리는 ‘개체 개념’도 그러한 구성적 개념일수 있는데, 현재 생물학은 ‘개체’를 마치 근대말의 ‘원자 개념’처럼 본질주의적으로 정의하고, 그를 통해 유전자와 표현형의 이분법적 장벽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⁶⁶⁾

다윈은 종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종을 구성하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묶어 ‘종’(species)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문제, 즉 현상을 성찰하는 사유의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종’(species)은 개념적 창조의 문제이지 결코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조상이 같고 서로 교배하는 개체의 집합”이 종이며, 이는 곧 “공통 조상과 떨어진 거리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개체의 집합”이 종이라는 것이다.⁶⁷⁾ 이렇게 종을 정의한다면, 종(species)이란 결국 “역사적 존재”이지 결코 자연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⁶⁸⁾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다윈은 “계통발생론”을 따라갔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63)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81.

64)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83.

65)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85.

66)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87.

67)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49.

68)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50.

종의 본성은 역사적”이며, 결국 모든 실재는 변화하며, 고정된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⁶⁹⁾ 따라서 종이란 이런 역사적 과정의 계기를 포착한 역사적 용어이다. 종이라는 실재를 마치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구성 개념이지 결코 실재가 아닌 것이다. 실재란 우리가 ‘종’이라고 유적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는 다중적 현상들의 역사적 패턴이다. 그리고 이는 개체(individual)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확고하고 불변하는 경계란 없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헤드의 현실체 이론이 가리키고 있는 바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발전해 온다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라는 현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이를 통해 끊임없이 분기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이후’를 향해 분기해 나아간다. 화이트헤드의 현실체 이론도 바로 이 실재(reality)의 애매성, 중층성 그리고 다수성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다윈의 종 개념은 개체(individual)이면서 다수(the multitude)이다. 이는 화이트헤드의 현실체가 개체이면서 다수인 것과 같다. 종이란 현상은 그를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 즉 “개체와 개체 사이”⁷⁰⁾에 있듯이, 화이트헤드에게 인간이란 ‘종적 현상’은 곧 그를 구성하는 현실체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 사이의 역동성과 그 사이가 낳는 차이(들)의 힘으로 말이다. 여기서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책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종의 기원은 아주 오래된 옛날의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체와 개체 사이’의 시공간이 열려지면, 그를 통해 종의 탄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후 종’이 이미 그

69)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52.

70)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114.

리고 언제나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진화를 “창발”(emergence)로 이해하자는 카우프만(Stuart A. Kaufman)같은 이의 이야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⁷¹⁾ 창발이란 기존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혼돈의 가장자리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나 ‘유전자’ 체계의 기존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창발적으로 세계 안으로 진입해 올수 있음을 복잡성 이론은 예증해 주고 있다. 인간 진화가 자연을 넘어서 문화 진화로 나아간다는 말의 본래 뜻은 이것이었다. 진화는 ‘인간’이라는 기존 질서마저도 언젠가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의 출현 이전의 과거 원인들로 “환원 불가능”하다.⁷²⁾ 인간 개인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새롭게 창출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한, ‘인간이라는 종’은 끊임없이 변이해 나아가고 있고, 그 과정은 결국 새로운 인간 종의 출현을 가리킨다. 이는 같은 동전의 반대 면으로 기존 인간 종의 멸종을 가리킨다. 이 종의 소멸과 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창조를 도모해야 할까?

5. 결론

다윈과 화이트헤드는 서로 만날 수 없이 다른 분야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인간-이후’를 꿈꾸는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들 중 ‘있는 자들’이

71) Stuart A. Kauffman, *Reinventing the Sacred: A New View of Science, Reason, and Religion*, (New York: Basic Books, 2008), x;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39.

72) 커닝햄,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는가?』, 142.

중심이 된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저항과 탈주의 몸짓을 시도하도록 손짓하고 있다. 그것은 곧 화이트헤드가 ‘존재’로 이해되던 실재(reality)를 새로운 개념들의 창조를 통해 ‘현실체’(actual entity)라는 새로운 인간 현상의 이해로 이끌어 갔듯이, 다윈은 종의 개념과 그 기원을 ‘개체들 사이’의 일상적 차이들의 분기로부터 ‘변이’(variation)를 이해하고, 기존 종 경계선의 소멸과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끌어 나아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윈과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인간 개념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탈-인간주의’나 ‘트랜스-휴머니즘’ 혹은 ‘인간-횡단주의’가 회람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간 개념의 창출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정위해 준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리프킨, 제레미(Jeremy Rifkin). 『생명권 정치학』 (Biosphere Politics). 이정배 역. 서울: 대화출판사, 1996.
- 박일준, 「화이트헤드의 사건적 존재론: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의 사이-존재로서 새로운 인간 이해」, 『화이트헤드 연구』, 26집. 2013.
- 박성관. 『종의 기원: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소멸의 자연학』. 서울: 그린비, 2010.
- 와이즈먼, 앨런(Alan Weisman). 『인간없는 세상』 (The World Without Us). 13쇄.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9.
- 호킹, 스티븐(Stephen Hawking) & 레오나르드 몰로디노프(Leonard Mlodinow). 『위대한 설계』 (The Grand Design). 전대호 역. 서울: 까치글방, 2010.
- 커닝햄, 코너(Conor Cunningham). 『다윈의 경건한 생각: 다윈은 정말 신을 죽

있는가?』(Darwin's Pious Idea: Why the Ultra-Darwinists and Creationists Both Get It Wrong). 배성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Darwin, Charles.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2 vols. London: John Murray, 1871.

_____.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London: John Murray, 1859.

Derrida, Jacques. Th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Kauffman, Stuart A. Reinventing the Sacred: A New View of Science, Reason, and Religion. New York: Basic Books, 2008.

Mayr, Ernst. This is Biology: the Science of the Living World.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Stengers, Isabelle. Thinking with Whitehead: A Free and Wild Creation of Concepts. trans. by Michael Cha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Whitehead, Alfred North.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originally published in 1933.

_____. The Concept of Nature. New York: Cosimo, Inc., 2007; originally published in 1920.

_____. The Modes of Thought. New York: Free Press, 1968.

_____. Process and Reality. Corrected Edition. by D.R. Griffin and D.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_____.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Lowell Lectures, 1925.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Abstract]

Theory of Evolution and the Ontology of
Event: Post-Humanist Implications of
Evolutionary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A.N. Whitehead's Multi-location Ontology

Park, Il-joon (Methodist Theological Univ.)

This article focuses upon what Whitehead really deconstructs rather than what Whitehead actually constructs, attempting to make dialogue with Darwin's theory of evolution.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Whitehead and Darwin, if any, can be found in what both of them tried to deconstruct. That is the issue of human being. In an age, in which the phenomena of human being itself has become problematic, one can find new terminologies like 'trans-humanism' or 'post-humanism,' but no one can define what they exactly mean. This article will try to explain the terms from the eyes of A.N. Whitehead, who saw 'entity' not as substance or 'being' but rather as process, and who proclaimed himself as a Platonist, evaluating the entire history of the Western philosophy as footnotes of Plato. Whitehead's philosophy is not harmonious with this secular age, because his philosophy talked of God, truth and harmony, which are banned in public area and because it also delivered an imagination after human being, that is, the imagination of the post-humanism. Evolutionary theory and process philosophy encounter right at this point. For both of them point to the extinction and birth of being-human. Whitehead's deconstruction

of the frame of simple location goes beyond a theoretical refusal to the modern substantialism and subverts our common-sense-based understanding of being-human. At this point, Darwin's theory of evolution makes us know that the origin of species does not from a remote ages or genes or environment but from just an in-between of individuals, that is, 'between an individual and an individual, where ordinary differences emerge. Based upon this ordinary difference, the human species deviates from the existing boundary of the species and creates a new boundary of species.

Key-Words: a theory of multi-location, fallacy of a simple location, A. N. Whitehead, C. Darwin, Post-Humanism, fallacy of the theory of evolution as adaptation, natural selection, divergence of character.

접 수 일 : 2014년 5월 2일

심사기간 : 2014년 5월 11일 ~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5월 17일

